

### 서울시내 공원내 건축물 디자인 수준 향상 나선다

서울시가 공원 내 공공건축물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발표한 '공원 내 공공건축물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에서 앞으로 시내 공원에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는 사전에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설계단계부터 전문가를 참여시켜 건축물 디자인 수준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자문은 서면이 아닌 현장방문이나 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1회성 자문을 피하기 위해서다. 지문대상 공원은 서울 내 근린공원, 소공원, 문화공원, 어린이공원 등 2181개소(2017년 기준)다. 시는 또 공원 내 건축물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검증된 설계자에게만 공사를 발주한다.

앞으로 시는 현상설계공모에 당선된 건축가, 서울시 건축상 수상자, 서울시가 위촉한 공공건축가, 사후 이용자 평가에서 우수한 건축물로 인정된 건축물의 설계자 등과 공원 내 공공건축물 설계 수의계약을 맺을 방침이다.

특히 시는 공공건축가에 대한 공원 건축물 발주를 촉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공공건축가가 설계에 참여한 안전은 사전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공공건축가가 설계를 맡을 경우 사전자문 등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배려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공원 내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제고를 위해 능력이 검증된 자의 설계와 자문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서울교육청, 탈북학생

### 학습진로멘토링 운영

학습활동 ·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

서울시교육청은 7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양평 미리내수련원에서 탈북학생 학습진로멘토링 겨울학교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겨울학교는 탈북학생의 학업과 진로 등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반영해 학습활동과 진로 체험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겨울학교에 참가한 학생들은 학습활동과 겨울철 계절활동과 연계한 체험, 진로체험, 상담전문가를 통한 일대일 심층상담 등을 제공받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탈북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스

# 이유있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 불가론 "미세먼지" 해제시 열섬효과 약화로 미세먼지 기승

## 해제시 열섬효과 약화로 미세먼지 기승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면 미세먼지 문제가 악화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연구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이 주최한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그린인프라 토론회'에서 "최근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서울을 둘러싼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지면 특성이 바뀌어 열섬효과 약화와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효과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 따르면 그린벨트 개발에 따라 도시숲이 줄어들면 지면의 지표 특성(거칠기, 온도, 증발산)이 변화한다. 이는 인접지역 바람 흐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도시숲이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모형을 통해 2016년 3월 기준 서울시내 온도변화를 살펴본 결과 그린벨트가 사라지면 서울 풍속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속 저하는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에 뚜렷하게 나타났다. 풍속 저하가 서울시내 저녁시간 대기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현재 관악산과 북한산 인근 도시림이 야간에 도시로 공기를 공급해 도심의 오염된 공기를 씻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해 서울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서울을 둘러싼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지면 특성이 바뀌어 열섬효과 약화와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효과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숲은 온실 효과도 준다고 정 교수는 밝혔다.

정 교수는 "서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낮아지고 초기에 가장 낮은 값을 보인다. 이는 숲의 광합성 작용과 탄소 흡수로 인한 현상"이라며 "도시림은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또한 저감하는 기능을 한다. 도시 내 탄소순환에서 숲의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벨트 개발과 도시림

축소는 열섬효과를 강화하게 되고 이는 밤방에 따른 에너지 사용증가, 발전량 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미세먼지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밖에 미세먼지를 잘 빨아들이는 나무가 어떤 종인지를 따져 보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김원주 서울연구원 박사가 지난해 6~8월 서울숲과 양재시민의 숲 현장조사를 통해 미세먼지 흡착량을 조사한 결과 양버즘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순으로 미세먼지 흡착량이 많았다.

양버즘나무와 느티나무는 잎에 털이 많고 흠이 잘 발달되어 다른 활엽수종에 비해 미세먼지 흡착능력이 우수했다.

다만 양버즘나무는 불철 일러지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느티나무가 가로수로 더 적합하다고 김 박사는 설명했다.

김 박사는 "소나무는 겨울철과 이른 봄 기간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스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스마트폰으로 쉽게 본다

### 개편된 서비스 오늘 공개

서울시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을 개편해 7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은 2010년 9월1일부터 운영됐다. 부동산 전·월세 가격, 아파트 분양정보 등 서울 전 지역의 부동산 정보를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개편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사용지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플러그인 설치를 없애고 기기 종류에 따라 서비스 화면의 크기가 유동적으로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을 도입했다. 지도서비스 조회도 가능해졌다. 개발공사지가, 주택공사가, 아파트 가격, 개발제한구역 용도지구 등 주제별로 지도를 제공한다.

시는 부동산 실거래가, 인근 부동산 전·월세가와 분양정보는 물론

토지수용에 대한 내용까지 서울시내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윈스톱 서비스를 강화했다. 포털사이트 '다음' 로드를 통한 주변 위치, 인근 공인중개사 정보도 함께 보여준다.

또 실거래가, 전·월세, 분양정보는 '거래정보' 메뉴로 통합해 메인 화면에 배치했다. '내가 원하는 아파트 찾기' 메뉴도 새롭게 생겼다. 원하는 가격대와 면적, 지역을 설정해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을 조회하고 단지별로 가격도 비교할 수 있다.



## 서울 비정규직 女 40% 출산 후 '경력단절'

### 67% 자녀돌봄 집중 독박육아 호소

### 35% "돌봄여유 생기면 일 늘릴 것"

### 정부 정책 중 유연근무제 확대 선호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는 비정규직 여성 10명 가운데 4명은 자녀 출산과 함께 결혼 당시 다녔던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택했지만 상당수 여성들이 자녀 돌봄이 집중되는 '독박육아'를 호소하고 있었다.

5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비정규직 여성의 일·가족 양립 실태와 지원 방안'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키우는 서울 비정규직 여성 1000명 가운데 80.7%는 결혼 당시 일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취업자 비중은 첫 자녀 출산과 함께 39.8%로 반토막이 났다. 비중은 둘째 자녀 때 37.1%, 셋째 자녀 출산 이후 35.8% 등으로 낮아졌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 가운데 정규직 비율은 결혼 당시엔 55.4%로 절반이 넘었지만 첫 자녀 출산 때 38.2%, 둘째 때 20.2%, 셋째 때 20.6% 등으로 급감했다. 반대로 40.3%였던 비정규직 비중은 첫 자녀 출산 시 57.3%로 오른 뒤 둘째 자녀 출산 시엔 71.1%까지 치솟았다.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이유 1순위로 41.2%가 '가사·육아를 병행하기에 근무시간·거리 등이 적합해서'라는 답을 꼽았다. 이어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서'(17.6%),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13.7%), '원하는 분야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13.4%)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비정규직 '직장만' 등은 하루 평균 5.2시간씩 일주일에 평균 4.7일 일하고 있었다. 하루 4~8시간 일한다는 응답자가 45.4%로 가장 많았고 1~4시간 이하 39.9%가 뒤따랐으며 8시간 넘게 일하는 여성은 14.7%였다.

이처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짧은 시간 비정규직 일자리를 구했지만 주말·휴일 근무나 불규칙한 근무

시간이 여성들의 발목을 잡았다. '최근 한 달간 주말에 하루 이상 근무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 37.3%가 그렇다고 답했다.

10명 중 1명(10.8%)은 공복결과 지방산거림, 현충일 등 어떤 공휴일에도 쉬지 못했다. 근무자의 날 선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54.4%로 공휴일 가운데 가장 낮았다. 어린이날에는 74.4%가 쉬었지만 어린이날 대체휴일 일하지 않은 비율은 55.8%로 떨어졌다.

비정규직 여성 5명 중 1명은 매일 근무시간 양이 다르거나(21.1%) 매주 근무일수가 제각각(20.6%)이었다. 19.1%는 출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았다. 응답자의 32.1%는 휴식 시 바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돌봄은 오롯이 일하는 여성들의 몫이었다.

'자녀를 돌보는 일이 주로 나에게 부과되고 있다'고 말한 비율이 67.8%에 달했으며 '우리 가족은 집안일을 내가 담당하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고 느끼는 비율도 60.5%였다. 반대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잠깐 봐줄 가족·친지 또는 이웃·친구가 있다는 여성은 37.9%와 26.6%에 불과했다.

민약 돌봄시설과 서비스 이용시간이 늘어나더라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시 일을 선택했다.

응답자 3명중 1명 이상인 35.1%가 '추가 소득을 위한 부업'(18.9%)이나 '근로시간 연장(16.2%)을 택했다. 휴식·수면시간을 늘리겠다는 답변은 23.2%, 취미·여가활동은 18.6% 등이었다. 27.6%는 지금도 부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대'(16.9%)였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휴가 확대'(13.6%), '발과후교실 등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확충'(13.5%), '여성 비정규직·지역일자 출산시 급여지원'(12.7%), '국립급 어린이집 확충' 및 '임신·출산·양육노동자 불이익·차별 근절'(각 8.7%) 등이 뒤따랐다.

뉴스스

완도군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